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성장파트너

보도시점 2026. 11. 4.(수) 배포 2026. 11. 4.(수) 09: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6년 장애인복지종사자 자기돌봄 재충전과정’ 성황리에 마쳐

-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종사자 소진 예방 및 회복탄력성 강화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교육관과 한라생태숲, 법환포구 일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복지종사자 자기돌봄 재충전과정(Self돌봄 Cheer up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과정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로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소진 예방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일상 및 업무 공간과 분리된 제주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종사자의 심리적 이완과 자기성찰, 동료 간 소통을 도와 자기돌봄 역량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장애인구 고령화(노인비율 49.9%) 및 발달장애 비율 증가(7.3%→9.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1.2만명→3만명)

□ 교육은 ▲기조강연 ‘돌봄, 나를 먼저 살피다’, ▲마음챙김 클래스(마음피트니스, TCI워크숍), ▲오감회복(숨고르기, 제주의 아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돌아보고 자연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활동과 동료 간 소통·성찰을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자기돌봄 역량을 길렀다.

□ 교육생들은 “업무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이 참 좋았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돌봄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의 마음 건강은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며, “앞으로도 제주교육관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보건복지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 장애인복지종사자 자기돌봄 재충전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담당 부서	제주교육부	책임자	부 장 김 은 옥 (064-767-6004)
		담당자	대 리 박 성 빈 (064-767-60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